



2018년
6월 셋째주

전남농업기술원, "메가쇼 2018 시즌1" 박람회 우수가공식품 판촉

VOL. 189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June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나서

정책동향

마을공동체 이끌 리더 양성교육 신청하세요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전남농업기술원, 농식품 판매지원 팜파티 실용화 나섰다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n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7~20도, 최고기온 : 24~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5~19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과일류 가격전망 및 생육상황
- ▶ 무·감자 본격 출하 ...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추세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담양 멜론 수출확대에 박차

- ▶ 전남농업기술원,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나서
- ▶ 전남농업기술원, 빅데이터로 양파 소비확대 방안 밝혀
- ▶ 기능 성분 많은 6쪽 마늘 홍산 품종 나왔다
- ▶ 나만의 소확행 농촌에서 찾는다
- ▶ 수수 『남풍찰』, 조 『단아메』 이렇게 심고 수량 늘려요
- ▶ 73세 어르신도 쉽게 이용하는 멧돼지 포획트랩
- ▶ 여름철 폭우·태풍 대비 인삼밭 관리 철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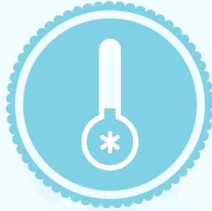
- ▶ 전남도, 하반기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 37억
- ▶ 마을공동체 이끌 리더 양성교육 신청하세요

- ▶ 여수시, 지역자원 이용 소득 창출 예비 마을기업 육성
- ▶ 나주시, 스마트 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신청
- ▶ 광양시, 백운산 토종복분자 본격 수확에 나서
- ▶ 고흥군,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기술 지도
- ▶ 보성군, 응치 올벼쌀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
- ▶ 해남군, 미니밤호박 본격 출하

- ▶ 중국, 유제품시장 연간 성장률 6.6%
- ▶ 태국, 국민들의 쌀 소비량 감소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6.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 ▶ 전남농업기술원, 농식품 판매지원 팜파티 실용화 나섰다
-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우수 가공식품 큰 호응 받아
- ▶ 직접 만든 소시지, 햄~ 뽐내보세요
-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2.9℃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27.6℃
(평년대비 2.7℃ 높음)
- 최저기온 : 19.2℃
(평년대비 0.2℃ 낮음)
- 강 수 량 : 8.2mm



목포시

- 평균기온 : 21.9℃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26.0℃
(평년대비 1.3℃ 높음)
- 최저기온 : 18.9℃
(평년대비 0.2℃ 높음)
- 강 수 량 : 7.7mm

여수시

- 평균기온 : 21.3℃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24.4℃
(평년대비 1.9℃ 높음)
- 최저기온 : 19.1℃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9.4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개화기 저온 피해로 과수 생육 전년보다 좋지 않아



착과수 감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세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 과원관리 필요!

(전년 대비)

	사과	배	감귤 (하우스온주)	포도	복숭아
6월 출하량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감소
6월 가격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류 가격전망 및 생육상황

○ 가격전망 : 사과·배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 감귤·포도·복숭아는 상승

- 사과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2만8천~3만 원/10kg 전망
- 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2만9천~3만 2천 원/15kg 전망
- 감귤(하우스온주)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6,300~6,500원/kg
- 포도(거봉)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만8천~2만1천 원/2kg
- 복숭아(천도)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2만3천 원/5kg

○ 생육상황 : 과수 생육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좋지 않아

- 사과 개화기 저온 피해로 전년 대비 착과수 감소 및 생리낙과율 증가
- 배 개화기 저온 피해로 전년보다 착과수 및 봉지수 감소, 잦은 강우로 검은별무늬병 발생 증가
- 감귤(노지온주) 잦은 강우로 잣빛곰팡이병 발생 증가
- 시설포도 개화기 저온 피해로 착립불량 및 노지포도 겨울철 동해로 꽃떨이 현상 발생
- 복숭아 동해 및 냉해로 전년 대비 착과수 감소
- 단감 동해 및 냉해로 조생종 중심의 유목 고사 피해 발생 및 전년 대비 꽃수 감소

○ 2018년 주요 과일 착과수·봉지수·꽃수 전년 대비 증감률

사과(착과수)	배(봉지수)	복숭아(착과수)	단감(꽃수)
-9.6%	-14.8%	-7.5%	-3.6%

* 자료 : 농업관측본부, 5월 31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무·감자 본격 출하 ...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추세

○ 동향

- 지난달 평균 농산물 도매가격은 평년 대비 4.1% 높은 수준이었으나, 6월 상순에는 평년 수준(평년비 0.5%↓)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쌀

- 산지 쌀값은 3월 말 산물벼 인수도(8.2만 톤) 이후, 4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5월부터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수확기까지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양곡 구매를 실시(6. 15. 공고)하고,
- 추후 원료곡 수급상황, 쌀값 추이, 금년 재배면적 및 작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수급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감자

- 5월 말부터 시작된 노지 봄감자 출하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 노지 봄감자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므로 본격 출하기인 6월에는 가격이 평년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양파

- 5월 중순 이후, 조생종과 함께 중·만생종 출하가 맞물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고온·다습한 날씨와 병해 발생으로 생산 단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은 평년 대비 최대 1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에도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배추

- 노지 봄배추 생산이 증가(평년비 12%↑)할 전망으로 가격은 5월 중순부터 평년보다 낮은 시세이며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과·배

- 작년 생산량 증가, 소비 부진 등으로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이상저온 피해 조사를 완료(~6. 20.)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등)을 파견하여 적과 시기 조절, 시비 관리 등의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산물 수급 특성 및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

- 농산물은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중에서도 채소류는 저장성이 낮고, 국내 수급 불안정 시에도 신속한 수입을 통한 대체가 어려워 단기간 내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이 큰 것은 농가소득 안정 및 가계의 안정적 소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생산 전부터 생육·출하까지의 단계별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 먼저, 관측사업을 통해 농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예측하여 농업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수급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드론, GIS 등 ICT 기술의 활용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 생육·출하단계에서는 주요 노지채소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그 외 채소는 지역 기금, 긴급가격안정자금, 농협 수급안정자금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름철 및 다가오는 추석 명절기간 동안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상여건과 작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6. 18.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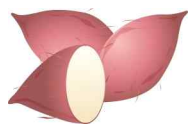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20kg	44,660	44,660	↑	4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520	31,800	39,533	↑	13.0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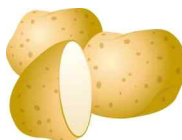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35kg	181,600	181,400	↑	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9,400	170,600	154,533	↑	17.5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0kg	44,400	44,200	↑	6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160	27,550	29,630	↑	49.8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20kg	28,000	30,000	↓	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400	30,050	24,320	↑	15.1

채소류

배추(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0kg	6,000	5,000	↑	3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24	4,525	5,283	↑	13.6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8kg	4,800	4,300	↑	77.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60	2,700	4,313	↑	11.3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00개	34,667	30,000	↑	1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3,733	29,500	31,959	↑	8.5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20개	13,400	12,800	↓	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920	13,800	14,140	↓	5.2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60kg	1,200,000	1,193,200	↑ 10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0,000	578,000	725,333	↑ 65.4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0kg	36,000	44,0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320	34,450	36,583	↓ 1.6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20kg	145,000	145,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5,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20kg	14,800	14,200	↓ 3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160	21,450	16,907	↓ 12.5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20kg	36,600	34,400	↑ 1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560	31,600	31,253	↑ 17.1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kg	1,360	1,460	↓ 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20	1,393	1,556	↓ 12.6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5kg	18,000	20,000	↑ 29.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160	13,900	16,440	↑ 9.5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개	15,600	16,000	↑ 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120	14,700	13,277	↑ 17.5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0kg	18,400	18,800	↑ 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240	17,800	15,453	↑ 19.1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5kg	13,800	14,000	↓ 19.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960	17,100	12,323	↑ 12.0

과일류

사과(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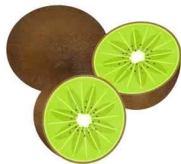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0kg	39,800	38,000	↑	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240	37,900	43,293	↓	8.1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5kg	37,800	38,200	↓	2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040	47,650	49,943	↓	24.3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0kg	42,400	42,400	↑	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8,700	43,845	↓	3.3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00g	7,936	8,128	↑	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81	7,828	6,961	↑	14.0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kg	4,732	4,700	↓	1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89	5,641	5,640	↓	16.1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30kg	498,600	498,000	↓	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000	521,000	535,333	↓	6.9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2kg	13,800	13,600	↑	1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60	11,900	13,882	↓	0.6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2kg	7,400	7,400	↓	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80	7,800	7,757	↓	4.6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00g	1,946	1,892	↓	1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35	2,259	2,193	↓	11.3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30개	3,948	4,154	↓	5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47	7,956	6,047	↓	34.7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6/18)	1주일전 (6/11)	전년대비
1L	2,525	2,525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16	2,524	2,528	↓ 0.1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6. 18. 기준 / 단위 : 천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91	5,612	5,330	↓ 0.4	↑ 4.9
	거세	6,685	7,176	6,530	↓ 6.8	↑ 2.4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59	3,280	3,105	↓ 0.6	↑ 5
	수	4,146	4,156	3,917	↓ 0.2	↑ 5.8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517	3,384	2,66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9	↑ 31.8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84	284	19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	47.2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48	428	4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7	↓ 5.1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125	1,049	1,66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2	↓ 32.5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677	747	2,09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9.4	↓ 67.7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900	1,767	2,6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5	↓ 28.8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담양 멜론 수출확대에 박차

- 전남농업기술원, 멜론 수출 규격품 생산 맞춤형 컨설팅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14일 담양 멜론의 판로확보를 위해 경북에 위치한 수출 전문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담양 반딧불영농조합법인(김복남 대표)에서 생산한 멜론을 홍콩 시장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 2002년에 설립한 담양 반딧불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98농가의 15ha면적에서 재배한 멜론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일부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도 출하하고 있다.
- 그동안 전남농기원과 담양농기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수출 규격품 생산 및 안전성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통해 품질 좋은 멜론 생산에 앞장서 왔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이번 멜론 홍콩 수출을 통해 국내 수급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 전략작목 발굴과 전문수출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현장애로 기술개발과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담양군





○ 전남농업기술원,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나서

- 1,227개소 3만여 명 농업인 대상 현장 애로기술 교육 실시 -

- 전남농업기술원(김성일 원장)은 6월 15일부터 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여름철 작물 생육관리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고소득 작목 핵심 영농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스마트농업, 논 타작물 재배 및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등에 대한 주요 농업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 교육 대상은 도내 농업인으로 21개 시군 영농현장 1,227개소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406명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전남은 1982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전문가가 농촌마을 현장에 찾아가는 주민소통 교육 사업으로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빅데이터로 양파 소비확대 방안 밝혀

- 빅데이터 분석결과 가격하락 시 양파즙 소비 2배 이상 늘어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금년 양파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양파 소비를 늘리고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농촌진흥청과 함께 빅데이터로 분석하였다.
- 양파의 도매가격(원/kg)은 2014년도 589원에서 3년간(2015~2017)은 1,131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 양파 초과 공급량(178천 톤)을 사전 면적조절(시장격리, 소비확대, 수매비축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4만5천 톤의 양파에 대해서는 소비량 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 전남농업기술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양파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글 검색 키워드는 신선양파는 요리, 건강식품은 양파즙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매체 순위는 공중파 뉴스 > 블로그 댓글 수 > 방송프로그램 순인 것으로 분석했다.
- 또한, 소비자들의 양파 구매 패턴은 신선양파 92.4%, 양파즙 7.6%이고, 신선양파 구입장소는 기업형 슈퍼 21.7%, 동네슈퍼 21.1% 순이었다. 특히, 양파즙은 농가 및 가공업체와 직거래가 55.4%, 전문점 18.5%로 나타났다.
- 양파 가격이 크게 하락(전년대비 43.3%)했던 2014년의 양파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신선양파 구입량은 16.2% 수준에 머물렀는데 양파즙은 약 220% 증가하여 양파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양파즙을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양파 구입량에서 있어서는 월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다만 양파즙의 경우 6월에서 8월에 54.5%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액상즙 시장에서 구입액 순위 및 시기를 분석한 결과 배즙 38.0%(10월~11월), 양파즙 33.9%(6월~8월), 포도즙 15.0%(9월~10월), 사과즙 13.2%(10월~11월) 순으로 나타나 계절별 수확시기에 액상즙의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기능 성분 많은 6쪽 마늘 홍산 품종 나왔다

- 마늘 녹색 반점은 국산 품종 증표, 외국산과 확실히 비교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기능 성분이 많고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는 6쪽 마늘 『홍산』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홍산 마늘은 다른 마늘에 비해 조단백질 성분이 많고, 미량 원소인 인과 마그네슘, 칼슘, 아연, 망간 성분도 10~20% 이상 함유하고 있다.
- 특히, 주요 기능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이 1kg당 1.89mg으로 다른 마늘(1.31mg)보다 높다. 항산화 기능이 있는 총 페놀은 100g당 117.99mg, 총 플라보노이드는 100g당 18.62mg으로 나타나 다른 품종보다 30% 이상 많았다.
- 홍산의 또 다른 특징은 마늘의 끝부분이 연한 초록빛을 띤다. 크로로필 성분 때문인데, 고혈압과 고지혈증 완화와 항알러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녹색 반점은 이 품종의 중요한 증표이기도 하다. 국내 품종과 외국산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반점을 확인하고 국산 마늘을 구입할 수 있다.
- 홍산 품종은 꽃피는 마늘을 이용해 육성한 마늘 중 하나로 난지형뿐만 아니라 한지형 등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다.
- 원래 마늘은 영양번식 작물로 국내 재래종 마늘은 꽃이 피지 않고 쪽이나 주아를 이용해 재배돼 새 품종 육종이 어렵다.
- 국내에서 재배 중인 마늘은 한지형 재래종을 제외하면 모두 도입된 품종이다. 남도, 대서 품종은 각각 중국과 스페인에서 들여와 우리나라에 적응한 품종이다.
- 홍산은 외국에서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들여와 2003년 교배조합을 작성한 다음 선발해 2011년부터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16년 품종등록 했다.
- 마늘 홍산 품종은 전국 마늘 주산지(10개 지역)를 중심으로 시범재배 중이며, 농가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전국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나만의 소확행 농촌에서 찾는다

- 농촌진흥청, 치유형·야외 여가활동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촌관광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이번에 개발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은 치유형과 야외 여가활동형 2종류다.
- 치유형 농촌체험은 마을의 자연환경과 농특산물 등 지역 특색의 농촌다움을 기반으로 한다. 마을숲 체험, 심신 다스림 프로그램, 농촌 향기 흡수 프로그램, 치유 텃밭정원, 자연의 선물·약선요리, 힐링 담근초, 농촌에서의 간식·힐링 꽃차 체험 등이 있다.
- 야외 여가활동형 농촌체험은 농촌 자연경관과 야외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ICT-어메니티어링, 농촌에서의 놀이 기술과 내가 만든 짚라인, 민박체험 및 농촌야영(팜핑)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 개발된 체험프로그램을 영암 선애마을, 예천 금당실정보화마을, 예산 의좋은형제마을, 충주 조기암마을 등 4개 농촌마을에 시연한 결과, 마을과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 전남 영암 선애마을과 충북 충주 조기암마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을 숲에서 명상과 휴식을 한 후, 약선요리를 만들고 텃밭정원을 가꾸는 체험을 했다.
- 경북 예천 금당실정보화마을에서는 주부대학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설사와 함께 하는 마을 숲 투어를 비롯해 전통음식 시식, 힐링 꽃차와 담근초 체험 등을 진행했다.
- 충남 예산 의좋은형제마을과 전남 영암 선애마을에서는 각각 일반인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경관과 역사·문화·생태에 관한 퀴즈를 풀며, 가볍게 뛰어놀 수 있는 ICT-어메니티어링을 진행했다.
- 현재 4개 마을에서는 시연했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을 원하는 마을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수수 『남풍찰』, 조 『단아메』 이렇게 심고 수량 늘려요

- 콤바인 수확과 안정적 수량 확보에 좋은 심는 거리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최근 많이 심고 있는 수수 『남풍찰』과 조 『단아메』의 적절한 심는 거리를 제시했다.
- 수수 남풍찰은 구멍 하나에 2포기씩 70×25cm로, 조 단아메는 구멍 하나에 2포기씩 60×5cm로 심으면 수량도 늘고 콤바인으로 수확하기도 수월했다.
- 수수의 키가 1.8m를 넘으면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예취부에 걸리거나 탈곡부가 막힐 수 있다. 특히, 남풍찰 품종의 경우, 키가 지나치게 자라면 결가지가 생겨 원줄기와 결가지 이삭의 성숙기가 달라져 동시에 수확할 때 품질이 떨어진다.
- 연구 결과, 남풍찰을 한 구멍에 2포기씩 70×25cm 거리로 심으면 기존에 1포기씩 60×20cm로 심은 것보다 결가지가 58% 덜 생기고, 수량은 27% 늘었다. 키도 1.8m 미만을 유지해 콤바인 수확이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때 심는 밀도가 8,330주에서 1만 1,430주로 1.4배 늘기 때문에 비료 양도 함께 늘려야 한다. 토양 비옥도가 낮거나 질소 비료가 부족하면 줄기는 약해지고 키만 자라게 된다. 기존에 10a당 10kg 주던 것을 12kg으로 늘리면, 키도 6~8cm 줄어 안정적인 콤바인 수확과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
- 신초형 조 단아메 품종은 줄기 길이가 1m 내외로 기존 품종보다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하며 기계 수확이 가능하다. 항산화물질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가공성도 좋아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곡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단아메는 구멍 한 개당 2포기씩 60×5cm 거리로 심으면 기존의 60×10cm에 비해 31% 수량을 올릴 수 있다. 비료는 10a당 질소 9kg, 인산 7kg, 칼리 8kg로 할 때 수량도 늘고 콤바인 수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3세 어르신도 쉽게 이용하는 멧돼지 포획트랩

- 이용 매뉴얼 따르면 포획효과 높아... 전남 고흥에서 6마리 잡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경지의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해 연속해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포획트랩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 먹이 활동을 나선 멧돼지들이 산간지역의 농경지에 자주 나타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농작업이 많은 농번기에는 멧돼지 밀도가 높으면 농업인에게 심리적 불안 요인이 된다.
- 포획은 미리 먹이주기, 포획트랩 설치, 집단포획 등 3단계를 거친다.
- 미리 먹이주기는 멧돼지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다. 연속 5일 이상 먹이를 먹었다면 포획트랩을 설치한다.
- 트랩을 설치한 후 유입구를 열어두고 평소 주는 먹이의 3배 이상(약 20L)을 바닥의 흙을 파낸 자리에 흩어 놓는다.
- 유입구를 열어둔 채로 연속 3일 이상 먹이를 먹을 경우 트랩 문을 닫아 집단포획을 한다.
- 최근 멧돼지 트랩 반응을 관찰한 결과, 포획은 야간에 비가 올 때 효율이 좋았다. 일차적으로 부분 포획을 했더라도 먹이를 계속 주면 추가 포획도 가능했다.
- 트랩으로 멧돼지를 잡았다면 읍면동사무소 야생동물 전담부서에 알려 전담 수렵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트랩 이용에 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061-330-1581)로 하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포획트랩 및
동영상 촬영기 설치



트랩 길들이기
(유입구 열고 먹이주기)



1차 포획(2018.4.18.)

여름철 폭우·태풍 대비 인삼밭 관리 철저히

- 장마 전 습해 예방·병해 관리하고 태풍 전 시설물 관리 나서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잦은 기상이변으로 올 여름철 폭우, 태풍에 의한 인삼재배 농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인삼밭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 여름 장마철 폭우는 인삼밭 습해를 발생시키고 점무늬병, 탄저병 등의 병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마 전에 습해를 예방하고 병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은 인삼밭은 반드시 배수로를 정비해 사전에 침수 및 과습 피해를 예방한다. 만약 인삼밭이 물에 잠길 경우엔 신속하게 물을 빼주고, 잎에 앙금이 묻었다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 병해 방지를 위해서는 장마가 오기 전에 약제 방제를 해야 하는데, 장마기 때 친환경 제재인 보르도액을 사용하면 인삼 잎이 약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삼 줄기가 꺾이거나 부러져 쓰러질 뿐만 아니라 해가림시설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 해가림시설 설치 시 규격미달 또는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표준 규격자재를 사용한다. 피해가 잦은 지역은 전후주연결식(두둑별 앞뒤 지주대 연결방식)으로 설치하고 구간구간 버팀목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강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방풍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시설물을 복구해 강한 빛에 인삼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병해 방제를 해야 한다. 장기간 침수돼 인삼 뿌리 부패가 우려되는 피해지역의 4~6년생 인삼은 일찍 수확하는 것이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도, 하반기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 37억

- 22일까지 시군서 접수... 친환경 실천농가유통 가공업체 대상 -

- 전라남도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희망자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규모는 37억 원 이내다. 연리 1% 저리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 신청 대상은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 농가,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용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전라남도는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심의를 거쳐 7월 초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올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은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설치, 가축운동장, 축산악취제거,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 시설자금에 53호 186억 원과 원료육 구입,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및 미생물 구입 등 운영자금에 13호 14억 원, 총 66호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 전라남도가 동물복지 녹색축산 실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해 2017년까지 855억 원을 조성했다. 그동안 282호에 619억 원을 용자금으로 지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마을공동체 이끌 리더 양성교육 신청하세요

-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26일 동부권, 29일 서부권 교육 -

-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문병교)는 오는 26일 동부권 곡성 문화레저센터와, 29일 서부권 전라남도 수리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한다.
-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리더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마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귀촌, 귀농인 등 전남 인구 유입 차원에서 지역 제한을 해제해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교육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이해와 운영사례 △마을리더 사례 △마을자원과 활용 방안 △공동체 내 갈등 관리와 주민과의 소통 등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요 지식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jnmaeul.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교육장과 가까운 지역을 선택한 후 센터 이메일(happyidid@naver.com) 또는 팩스(061-982-1016)로 하면 된다.
-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2019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리더 양성교육 외에도 작은 학교와 민관이 연대한 돌멩이와 풀뿌리학교 사업, 공모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7월부터는 전남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http://www.jnmaeul.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61-982-1062~3)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지역자원 이용 소득 창출 예비 마을기업 육성

- 특산물 가공·전통시장 활성화 등 사업비 지원 -

- 여수시가 지역의 자원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여수형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
- 시는 오는 20일까지 여수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 희망 법인을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 주민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신청은 5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한 법인만 가능하다.
- 또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 차지해야 한다.
- 선정된 법인은 약정체결과 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추진사업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특산물 가공,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등이다.
- 마을기업 지정을 원하는 법인은 기간 내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시 일자리정책관실(061-659-3598)로 제출하면 된다.
-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최종 마을기업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사업계획 발표, 심의회 최종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 출처 : 여수시

▶ 나주시, 스마트 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신청

- 최적의 생육환경 자동 제어, 농가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기대 -

-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예비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혁신정상 8대 선도과제인 스마트 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팜 규모화·직접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4개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 나주시가 전남도에 제출한 예비계획서에 따르면, 전체면적 40ha, 사업비 1,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여기에는 △청년보육 및 실습농장, △청년임대 스마트 팜, △기업연구 실증단지, △특화시설 및 생산단지 스마트 팜,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스마트 팜 핵심 시설이 들어선다.
- 나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원예 단지로서 농업 분야 파급효과가 높다는 점과,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내세웠다.
- 또, 청년 농업인 양성 요람인 호남원예고등학교를 비롯해,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업 관련 공공기관 간의 공동기술 개발, 상용화, 실증까지 가능한 복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고 있다.
- 전남도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현장평가와 대면평가 등의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이달 내 대상 시군 1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7월 13일까지 농식품부에 선정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백운산 토종복분자 본격 수확에 나서

- 2019년까지 한국인삼공사에 21톤 납품, 특화단지 조성에도 박차 -

- 광양시는 풍부한 햇살과 공기 청정한 자연조건에서 자란 백운산 토종복분자를 6월 중순 미숙과 수확을 시작으로 8월 본격 출하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와 『햇살담은 토종복분자 농업회사법인』은 2016년 10월 한국인삼공사(정관장)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미숙과로 21톤을 납품하기로 했다.
- 백운산 토종복분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우량 복분자 품종을 육종한 것으로, 시와 과학원이 2007년 재배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한 후 봉강면 일원 26농가 10.8ha에서 소득전략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다.
- 특히, 유기농으로 생산된 토종복분자는 철저한 재배 관리를 거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인증된 미숙과만 판매돼 건강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 오는 8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햇살의 힘 백운산 토종복분자』는 생과가 아닌 건조한 미숙과로 kg당 7만5천 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 한편, 광양시와 토종복분자 협회는 한국인삼공사(정관장)와의 계약된 물량을 유지하고, 국내 유일의 토종복분자 특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산림청에 국유품종보호권(근삽 정금 4호(2,040본), 5호(1,773본))의 통상실시권을 신청해 허락을 받았다.
- 시는 허락 받은 근삽 정금 4호와 5호 총 3,813본을 육성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광양시

고흥군,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기술 지도

- 원예작물 총채벌레, 응애 및 벼 이앙 후 병해충 관리 철저 -

- 고흥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의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벼농사의 경우 모내기 후 발생하는 병해충을 중심으로 예찰하여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멸강나방은 논 포장 뿐 아니라 논둑, 유흥지, 사료작물 포장도 잘 살펴 발견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 애멸구는 줄무늬잎마름병을 매개하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병해충 예찰정보를 주의 깊게 듣고 발생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 산기슭, 논둑, 제방의 잡초더미에서 월동하는 먹노린재는 6월 초순부터 벼 포장으로 이동하여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앙을 빨리한 논, 작년에 발생이 많았던 포장은 벼 포기 밑의 줄기를 잘 살펴 발견 즉시 적용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 시설 및 노지 채소류, 과수 등 원예작물의 경우 고온이 계속되면서 진딧물, 총채벌레, 응애 등 해충의 발생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발견 초기 방제를 추진하여 밀도를 낮춰줘야 한다. 이들 해충은 특히 토마토 반점위조병 등 각종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방제를 추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또한 노지 고추는 장마철 잦은비로 인해 탄저병과 역병 발생이 쉽고, 유자는 전년도 죽은가지로 인한 흑점병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비오기 전후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군관계자는 “6~7월은 비가 많고 고온이 계속되어 1년 중 병해충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되는 예찰정보에 귀 기울이고 예방위주의 방제를 실시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보성군, 웅치 올벼쌀 향토산업 육성사업 선정

- 내년부터 4년간 30억 원 투입, 식품가공클러스터 사업 진행 -

- 보성군은 전남도 주관 2019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웅치 올벼쌀 식품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신규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촌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웅치 올벼쌀은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향토 자원성, 산업화 가능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향토산업 육성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4년간 웅치면 강산리 일원에 올벼쌀 종합가공센터 및 체험시설 건립,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올벼쌀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체험·수출 등의 경영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리적 표시 제71호로 등록된 웅치 올벼쌀은 순수한 찰벼만을 완숙되기 전에 수확하여 전통방식의 가마솥에서 수증기로 찌서 햇볕에 건조하고 현미로 도정한 쌀이다.
-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고품질의 웰빙식품으로 항암 및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 간식과 선식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해남군, 미니밤호박 본격 출하

- 올해 800여톤 생산, 명품 특산물로 소비자 각광 -

- 해남 미니 밤호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미니밤호박은 일반 호박에 비해 영양가가 높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 C등이 풍부해 감기 예방과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해남에서 생산되는 밤호박은 시설하우스와 친환경 덕 시설을 이용한 공중 재배로 품질이 월등하고, 밤맛이 나는 우수한 식감으로 대표적인 지역 명품 특산물로 꼽히고 있다.
- 이달 초부터 수확을 시작한 미니 밤호박은 올해 800여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일주일 가량의 후숙기간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가격은 7~10과가 들어있는 4kg 한 박스에 2만 5000원에서 3만원선에 직거래되고 있다.
- 해남군에서는 230여농가에서 48ha 면적의 밤호박을 재배, 연간 50여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한기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 중국, 유제품시장 연간 성장률 6.6%

- 2022년까지 중국 유제품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6.6%에 달하며 요구르트와 치즈의 판매액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2014년, 중국 요구르트의 연매출 성장률은 20% 이상이었으며, 2015년부터 2017년 치즈의 성장률은 15%에서 25%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초과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유제품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요구르트와 치즈의 판매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의 일인당 연평균 유제품 소비량 보다 적다.
- 중국의 일인당 연평균 우유 소비량은 14.3L로 일본 36.8L, 미국 51.7L인 것에 비해 훨씬 적다. 중국의 요구르트 소비량 또한 일인당 3.4kg로 미국 4.9kg, 일본 9.6kg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데이터에서 봤듯이 중국의 유제품 소비량은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소비자들의 식습관이 비슷하므로 중국 유제품 소비도 향후 발전가능성이 더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중국 유제품 시장의 성장은 소득수준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서는 첫째, 유제품 판매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둘째,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셋째 소비자가 중, 고급 유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 유제품 중 요구르트는 서민들에게 각광을 받으며 판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요구르트는 중국 유제품 시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전체 식품음료 제품들 중에서도 선두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 중국 도시 소비자들은 대기업(65%)과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59%)의 유제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 또한, 수입유제품(43%)을 선호하는 소비자수는 국산유제품(34%)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보다 많으며, 국산유제품의 품질을 믿는 소비자들 중에서도 32%는 수입유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시사점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유제품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큰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국가에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중국 내에서는 아직도 유제품만큼은 수입품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 생우유가 직접 수출되고 있으며 중국 대형마트에서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 수입유제품을 더욱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는 분명 한국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 따라서, 국가의 안전성 이미지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건강한 먹거리만을 지속 생산해 내고 기업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부단히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태국, 국민들의 쌀 소비량 감소

- 태국 쌀 산업의 치열한 경쟁과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쌀 무역상들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나 Hongthong(Golden Phoenix) 브랜드 제조업체인 Bangsu Chia Meng Rice Mill Co는 이러한 추세가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음.
- Bangsu Chia Meng Rice Mill Co는 최근 쌀 기반의 화장품 및 제약 제품 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매출 증가하려함.
-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출산율 감소, 외식추세 그리고 동·서양의 다양한 음식 메뉴선택 때문이며 앞으로 건강문제 증가와 태국인의 고령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더 감소할 것임.
- 벼(paddy rice) 가격이 작년 1톤 당 10,000바트에서 18,000바트로 가격이 상승해 회사는 5kg에 290바트에 판매되는 홈 말리 쌀 포장팩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상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음. 말리 쌀의 높은 수요로 인해 프리미엄 쌀 5kg가격이 올해 패키지 당 300바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시사점은 태국에서 생산하는 품질 좋은 쌀들은 주로 수출되고 내수용은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태국인들의 인식이 있고 한국 쌀에 비해 맛이 떨어짐.
- 태국은 세계 쌀 수출 1위이지만 일부 태국인들은 맛있는 밥을 위해 일본식 쌀을 사서 먹는 데 한국의 품질 좋은 프리미엄 쌀도 태국 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도 있음.
- 태국인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앞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나 즉석식품 등 편의점 음식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태국 편의점의 즉석식품의 가격은 35바트-50바트 정도로 저렴. 한국식품은 대부분 이보다 비싸므로 참치 캔처럼 유통기한이 길거나 상온보관 가능한 즉석 식품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6.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 주요 곡물 선물가격, 3세션 연속 전부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4%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달러강세와 공급증가로 인해 상승했다. 지난 6세션 중 5세션이 하락세였으며 3세션 연속 하락했다. 장중 환매로 인해 가격이 잠시 상승하였으나 결국 1개월 만에 최저치로 장을 마감했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0.5%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긍정적인 날씨 전망이 이어지고 중국과 무역 우려로 인해 하락했다. 멕시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강화할 경우 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옥수수와 대두 수입에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를 완화 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또한 미 중서부 지역의 긍정적인 날씨도 영향을 미쳐 옥수수 가격은 장중 약세를 유지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3%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급락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미국 대두 수출이 불확실해 지면서 2016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대두박과 대두유도 하락하면서 추가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전남농업기술원, 농식품 판매지원 팜파티 실용화 나섰다

- 도시 소비자 90여명 초청, 체험·교육·공연 등 다양한 행사 진행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9일 해남군 북일면 최경주 농장에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라는 주제로 소비자 90명을 초청, 농식품 홍보와 판매 증대를 위한 팜파티를 개최하였다.
- 이번에 개최한 팜파티에서는 홍화꽃을 이용한 방향제, 떡, 와플 만들기 체험과 사물놀이, 이벤트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가졌다.
- 팜파티(Farm Party)는 기존의 농촌관광, 체험과는 달리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이고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행사이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전남농업기술원(농업정보팀)이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우수 가공식품 인기 최고

- 메가쇼 2018 시즌1 박람회 우수가공식품 판촉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의 우수 가공식품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판매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생산농가로 판촉단(9명)을 구성,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메가쇼 2018 시즌1』 박람회에 참여 하였다.
- 참여 농가들은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소규모 가공농가 마케팅 향상』 과정에 참여하여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교육을 20일간 수강하였고, 박람회 참가를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번에 전시된 제품을 통해 전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다”면서 “기회가 있다면 전남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인근 이웃들에게 적극 홍보 하겠다”고 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전남의 우수한 가공식품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농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직접 만든 소시지, 햄~ 뽐내보세요

- 농촌진흥청 7월 21일 경연대회... 이달 말까지 신청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18년 농업기술박람회(창원컨벤션센터, 7. 18. ~ 7. 21.) 기간 중 부대행사로 7월 21일 『수제 햄·소시지 경연대회』를 마련했다.
- 참가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소규모 식육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종사자와 육제품 제조 체험 농가는 물론, 일반인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신청은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http://www.agritechex.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전자우편 (smkang7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심사는 1차 서류심사(7. 2. ~ 7. 6.)를 거쳐, 창의성과 품미, 품질 등을 기준으로 국내 육가공 전문가들이 시식 평가(7. 21.)한다.
-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상과 국립축산과학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http://www.agritechex.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강선문 농업연구사는 “최근 소규모 육가공 업체와 육제품 제조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실력을 평가받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직무관련자가 사무실에 상품권을 놓고 간 사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601)330-2593 Fax. 061)335-4199

VOL. 189

